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 역할

손 은 정* 홍 혜 영 이 은 경
백석대학교 명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종교성과 안녕감간에 삶의 의미와 낙관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종교가 있는 26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행동/종교깊이 질문지,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척도, 삶의 의미 척도, 낙관성 척도,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삶의 의미는 종교성과 낙관성 간을, 낙관성은 삶의 의미와 안녕감간을, 그리고 삶의 의미는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하였으며, 완전매개모형보다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방식은 종교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지며 삶의 의미가 높아질수록 낙관성이 높아져 결국 안녕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종교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안녕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실체에서 종교를 가진 내담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삶의 의미, 종교성, 낙관성, 안녕감

* 교신저자 : 손은정,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1-7
E-mail : wdcshon@hotmail.com

종교는 한국인의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53.1%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통계청, 2005), 55.7%의 한국인이 생활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한국갤럽 2004). 따라서 상담을 찾아오는 내담자들 역시 상당수 종교인이라 볼 수 있으며, 종교는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상담에서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 결과, 상담을 찾아온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종교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기를 원했으며(Rose, Westefeld, & Ansley, 2001), 종교가 있는 내담자들은 같은 종교를 가진 상담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Wyatt & Johnson, 1990), 종교에 대해 직면하고 반박하는 것보다는 내담자의 종교를 지지할 때 내담자가 더 성장하는 경향이 있었으며(Morrow, Worthington, & McCullough, 1993), 종교성향이 높은 내담자들은 종교가 없는 상담자에 대해 부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ating & Fretz, 1990). 또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종교는 인종이나 성과 같이 상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주장되어 왔다(Shafranske & Malony, 1996). 따라서 종교가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종교가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담자의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종교는 안녕감(well-being)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에 참여하는 정도(예: 기도 횟수, 예배 참석 횟수, 종교의 깊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Ellison, 1991; Kogan, Luo, Murry, & Brody, 2005; Steger

& Frazier, 2005). 또한, 종교 자체가 삶의 목적과 동기가 되는 내재적 종교성향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의 관계가 있었으며(조혜윤, 손은정, 2008; 허현나, 2002; Maltby & Day, 2000; Tix & Frazier, 2005),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안녕감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Chamberlain & Zika, 1988; Lewis, Maltby, & Day, 2005; Tix, & Frazier, 2005).

그러나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종교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는 종교유무나 종교성향에 따른 인지과정이나 성격 발달의 차이, 또는 동성애혐오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져왔지만(김동기, 1993;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이기학, 이혜령, 2003), 종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Baumeister(2002)는 종교가 어떤 기제에 의해 정신건강과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은 추후에 중요한 연구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Worthington, Kuru, 그리고 McClough(1996)는 종교가 삶의 의미, 낙관성, 사회적 지지 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안녕감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George, Ellison, 그리고 Larson(2002)은 사회적 지지, 개인적 자원(예: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매개 역할은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진 반면, 삶의 의미의 매개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종교는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의식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Petersen과 Roy(1985)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성은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명심과 손정락(2007)의 연구 그리고 Kark, 등(1996)의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일관성에 대한 지각이나 삶의 목적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행동은 실존적 확신(existential certainty)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Ellison, 1991).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종교는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일관성에 대한 지각이나 실존적 확신은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이를 측정하는 척도들 역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척도들(예: 삶의 만족도, 우울 등)과 중복되는 문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Steger, Frazier, & Oishi, 2006). 이에 일관성에 대한 지각, 실존적 확신, 삶의 목적의식에 대한 개념을 조작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전시켜 ‘삶의 의미’ 척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주관적 느낌인 ‘의미의 존재’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과 추동을 나타내는 ‘의미의 추구’라는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teger, et al., 2006), 새롭게 개발된 삶의 의미 척도 역시 종교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 Frazier, 2005; Steger, et al., 2006).

또한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일관성을 나타

내는 삶의 의미는 종교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정주리, 이기학, 2007; 허지연, 손은정, 2008; Steger & Frazier, 2005; Steger, et al., 2006), 약물남용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특성들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wcomb & Harlow, 1986).

종교가 삶의 의미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며, 삶의 의미가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는 선행 연구들은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니었지만, 삶의 의미가 두 변인 간을 매개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는 Chamberlain과 Zika(1988), 그리고 Steger와 Frazier(2005)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삶의 의미가 두 변인 간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각각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교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Chamberlain과 Zika(1988)는 내재적 종교성향에 대한 척도만을 사용하는데 반해, Steger와 Frazier(2005)는 종교행동과 종교깊이만을 측정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종교성의 한 측면만을 측정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종교적인 활동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와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종교성향의 특성이 모두 측정되어 변인에 포함되었을 때에도 삶의 의미가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Chamberlain과 Zika(1988), 그리고 Steger와 Frazier(2005) 모두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여부와 정도,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채서일, 2004). 따라서 종교성, 삶의 의미, 그리고 안녕감 간의 방향성과 인과성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연구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Chamberlain과 Zika(1988)와 Steger와 Frazier(2005)의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안녕감 간에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만을 살펴보았으나, Worthington 등(1996)이 제안한 바와 같이 다른 여러 변인들도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다른 매개 변인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기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삶의 의미 외에 '낙관성(optimism)'의 매개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낙관성이란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로서(Scheier & Carver, 1985), 최근에는 특정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하는 상황 특수적인 반응의 하나로 보고 있다(Lazarus, 1993).

여러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Hood, Spilka, Hunsberger, 그리고 Gorsuch(2003)의 연구에서 종교성은 낙관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Kolchakian과 Sears(1999)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대처가 낙관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종교성은 낙관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낙관성은 삶의 만족도,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Chang, Sanna, & Yang, 2003), 불안이나 우울과는 부적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Kolchakian & Sears, 1999), 낙관성이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이 낙관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며 낙관성이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낙관성은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종교성과 안녕감 간에 낙관성의 매개 효과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으나, 조혜윤과 손은정(2008)의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종교적 대처와 불안 간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Pearce, Singer, 그리고 Prigerson(2006)의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암환자를 부양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대처와 부양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성은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삶의 의미와 낙관성 간의 관계에 대한 Steger와 Frazier(2005)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 역시 낙관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성과 삶의 의미가 낙관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며, 낙관성이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은 삶의 의미와 함께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종교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미래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인 낙관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안녕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교성은 삶의 의미라는 매개를 통해서 안녕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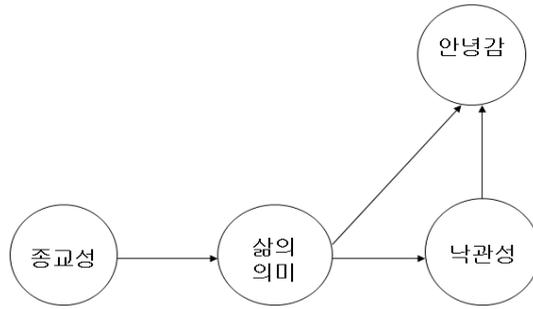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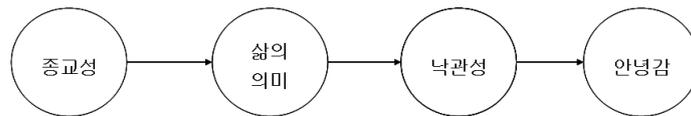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삶의 의미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낙관성의 매개를 통해서도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매개 변인 중 삶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이전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분명하게 삶의 의미의 매개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에 대해 종교행동과 깊이뿐만 아니라 종교 행동을 하는 동기를 나타내는 내재적 종교성향도 같이 측정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교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종교성, 삶의 의미, 그리고 안녕감 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배병렬, 2007)을 사용하고자 한다.

종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종교가 있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종교성과 안녕감 간에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의미는 종교성과 낙관성 간을 매개할 것인가, 둘째, 낙관성은 삶의 의미와 안녕감 간을 매개할 것인가, 셋째, 삶의 의미는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할 것인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서울, 천안, 부산 지역의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83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너무 많거나 타당하지 않은 자료로 판단된 23부를 제외한 26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반신환(2006)의 연구에서 서구의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개발된 종교

에 대한 척도들을 불교인들이나 무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타당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교성향 척도나 종교행동 및 깊이에 대한 질문들 역시 서구 사회에서 개발된 척도로서 불교인들이나 무종교인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25.56세(표준편차 6.29)이었고, 남녀 비율은 남자 42.4%(110명), 여자 57.7%(150명)이었으며, 종교유형비율은 개신교 97.7%(254명), 카톨릭 2.3%(6명)이었으며, 종교생활기간은 평균 18.68년(표준편차 9.22, 범위 1.0~54.0)으로 나타났다.

도 구

종교성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종교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해 Steger와 Frazier(2005)의 종교행동과 종교 깊이에 대한 질문들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들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행동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예배(미사)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종교의 깊이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대체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들 수 있다. 원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행동과 깊이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4문항 모두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Steger와 Frazier(200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5$ 로 나타났다.

또한 Allport와 Ross(1967)가 개발한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척도(IREROS: Intrinsic Religious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ub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8문항은 내재적 성향을, 11문항은 외재적 성향을 평가하며, 1문항은 집단의 구분에 사용된다. 20개 문항을 1점에서 4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혜윤과 손은정(2008)의 연구에서 외재적 종교성향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4$, 내재적 성향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외재적 종교성향을 제외하고 내재적 성향 하위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재적 종교성향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등(2006)이 개발하고 원두리 등(2005)이 번안한 삶의 의미 척도(MLQ: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주관적 느낌인 '의미의 존재'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과 추동인 '의미의 추구'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척도에 5문항씩 전체 10문항의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 수준은 두 하위요인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 이었다.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cheier, Carver, 그리고 Bridges가 1994년 개정하고 권혜경과 이희경(2004)이 번안하여 사용했던 낙관성 척도(A Reevaluation of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낙관성 측정 문항과 실험 참여자들이 낙관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4개의 여과 문항(filler item)으로 구성되어있다. 낙관성 측정 6문항은 3개의 긍정적 문항과 3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조혜윤과 손은정(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6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4$ 이었다.

안녕감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정주리, 이기학(2007)이 사용한 삶에 대한 만족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삶에 대한 만족척도는 5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2$, 정주리, 이기학(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7$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0$ 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종교성(종교행동/종교 깊이, 내재적 종교성향), 삶의 의미, 낙관성,

그리고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SPSSWIN 12.0과 Amos 5.0이 사용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실시함에 있어서 결측치는 FIML방법으로 처리하였다.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random으로 발생했거나(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Missing At Random, MAR)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할 수 있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한편 본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세 가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절대 적합도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임을 의미하며, 통상 .9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해석하며, RMSEA는 부적합을 측정하는 절대 적합도지수로 0.06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결 과

종교행동/종교깊이, 내재적 종교성향, 삶의 의미, 낙관성,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종교행동/종교깊이, 내재적 종교성향, 삶의 의미, 낙관성, 안녕감의 평균, 표준편차, 각 변

표 1.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계수

	1	2	3	4	5
1. 종교행동/종교깊이	1				
2. 내재적 종교성향	.64***	1			
3. 삶의 의미	.45***	.54***	1		
4. 낙관성	.25***	.30***	.35***	1	
5. 안녕감	.43***	.35***	.50***	.57***	1
평균	16.44	25.33	51.76	22.79	22.90
표준편차	2.14	3.70	7.58	3.31	4.94

주. N=260. *** $p < .001$

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종교성, 삶의 의미, 낙관성, 안녕감에 대한 매개모형 검증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절차에 따라,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후, 연구가설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85.102(df=48, p<.001)$ 였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는 .961이었고 TLI는 .936이었으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5(90% 신뢰구간 .035-.073)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측정변수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모든 변수 $p < .001$).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잠재변수는 적절하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구조모형에서는 위의 그림 1,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교성, 삶의 의미, 낙관성, 그리고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분매개 모형은 $\chi^2=89.156(df=50)$ 였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는 .959, TLI는 .935,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5(90% 신뢰구간 .036-.073)로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완전매개 모형 역시, $\chi^2=98.702(df=51)$ 였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는 .950, TLI는 .923,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60(90% 신뢰구간 .042-.078)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두 모형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1)=9.546$ 으로 $\Delta df=1$ 에 유의미한 차이인 $\Delta\chi^2=3.84$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표 2.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표준화 경로계수
종교성				
종교행동/종교깊이	1.00			.78***
내재적 종교 성향	1.82	.18	9.92	.82***
삶의 의미				
삶의 의미 1	1.00			.49***
삶의 의미 2	1.10	.16	6.90	.69***
낙관성				
낙관성 1	1.00			.71***
낙관성 2	.92	.11	8.10	.65***
낙관성 3	.38	.11	3.37	.24***
안녕감				
안녕감 1	1.00			.65***
안녕감 2	1.24	.13	9.71	.73***
안녕감 3	1.33	.13	10.42	.80***
안녕감 4	.92	.11	8.15	.59***
안녕감 5	1.43	.17	8.62	.63***

주. N=260. *** $p < .001$

표 3.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elta\chi^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89.156		50	.959	.935	.055(.036-.073)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98.702	9.546	51	.950	.923	.060(.042-.078)

는 완전매개 모형에서 제외된 경로가 구조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적합도 지수도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보다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전매개 모형보다는 부분매개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도와 경로계수를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참조하면 [종교성->삶의 의미]의 경로계수(.792, $p < .001$)와 [삶의 의미->낙관성]의 경로계수(.565, $p < .001$), [낙관성->안녕감]의 경로계수(.639, $p < .001$) 모두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안녕감]의 경로계수(.352, $p < .001$)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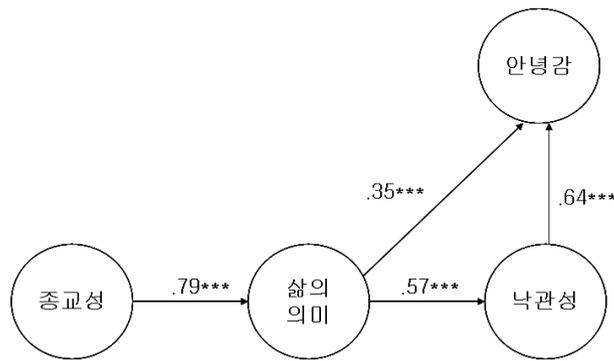


그림 3. 부분매개 모형 경로도

*** $p < .001$

표 4.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모형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부분매개모형	종교성 --> 삶의 의미	1.213	.792	.195	6.224***
	삶의 의미 --> 낙관성	.093	.565	.019	4.933***
	낙관성 --> 안녕감	1.122	.639	.213	5.279***
	삶의 의미 --> 안녕감	.101	.352	.030	3.433***

주. *** $p < .001$

종교성이 높을수록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느끼며,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낄수록 현재나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안녕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종교가 있는 내담자들은 자신의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담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며 (Rose, et al., 2001), 내담자의 종교에 대해 부정하는 것보다는 내담자의 종교를 지지할 때 내

담자가 더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Morrow, et al., 1993). 따라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종교를 수용하고 내담자의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내담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내담자의 종교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들의 안녕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교행동 및 종교깊이 그리고 내재적 종교 성향은 삶의 의미, 낙관성, 안녕감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나 방향이 달라졌고 (Ellison, 1991; Kogan, et al., 2005; Steger & Frazier, 2005),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내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심리적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조혜윤, 손은정, 2008; 허현나, 2002; Chamberlain & Zika, 1988; Lewis, et al., 2005; Maltby & Day, 2000; Tix & Frazier, 200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종교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아짐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기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첫째로 삶의 의미가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과 안녕감 간에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던 Chamberlain과 Zika(1988)와 Steger와 Frazier(2005)의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종교성의 한 측면만을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종교행동 및 종교깊이와 내재적 종교 성향을 모두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렇게 종교성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한 이후에도 종교성과 안녕감 간에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 종교성과 안녕감 간에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가 보다 확실하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의 여부, 정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귀분석(채서일, 2004)을 통해 매개효과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성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이라는 분석 방법을 통해 종교성, 삶의 의미, 그리고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인과성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두 번째 결과로, 낙관성은 삶의 의미와 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이 종교성 및 삶의 의미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선행 연구들(조혜윤, 손은정, 2008; 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Chang, Sanna, & Yang, 2003; Kolchakian & Sears, 1999; Steger & Frazier, 200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낙관성 역시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에서는 낙관성이 삶의 의미와 안녕감을 매개하는데 있어서, 완전매개모형보다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의미는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도 있으면서 낙관성의 매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종교성이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를 통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종교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지고 삶의 의미가 높아질수록 낙관성이 높아져 결국 안녕감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즉, 종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향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며, 이로 인해 미래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고, 결국

삶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종교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안녕감이 증가하게 되는 방식이다. 즉, 미래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종교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해 의미 있게 느끼고 있다면 안녕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 실체에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내담자가 종교성이 높다 하더라도 현재 삶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가 있는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의 종교성과 현재 삶의 의미를 서로 연관시켜 주는 것과 그것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내담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종교성이 높은 내담자의 안녕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안녕감 간에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 효과만을 살펴보았으나, Worthington 등(1996)은 종교성이 삶의 의미, 낙관성 외에도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교성에 의해 안녕감이 높아지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되었던 변인들 이외에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다른 변인들의 매개 역할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삶의 의미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

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Reker, 2005). 따라서 삶의 의미가 종교성과 안녕감 간을 매개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중년기나 노년기와 같은 발달 단계별로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불교인들이나 무종교인들에게 사용하는 데에는 타당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반신환, 2006) 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종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척도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종교들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 김동기 (1993). 종교유무, 종교정향에 따른 귀인의 차 및 성격과의 상관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34-45.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반신환 (2006). 대학생의 종교와 종교적 대처: 내담자의 종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39-155.
- 배병렬 (2007). Amos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협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이기학, 이혜령 (2003). 종교성향과 강박적 성격특성이 사고-행동 융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59-460.
- 정주리, 이기학 (2007). 삶의 의미발견 과정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92-293.
- 조혜윤, 손은정 (2008).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73-797.
- 채서일 (2004).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최명심, 손정락 (200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51-967.
- 통계청 (2005). *시도별 종교인구(2005년 인구총조사)*.
- <http://kosis.nso.go.kr:7001/ups/chapterRetrieve.jsp?pubcode=MA&seq=292&pub=3>.에서 2009. 2. 5 인출
- 한국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제 4차 비교조사*. 서울: 한국갤럽
- 허지연, 손은정 (2008). 청년기와 중년기 집단에서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40-341.
- 허현나 (2002).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llport, G. W., & Ross, J. W.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Baumeister, R. F. (2002). Religion and Psychology: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Psychological Inquiry*, 13, 165-167.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2-111.
- Chamberlain, K., & Zika, S. (1988). Religiosity, life meaning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 411-420.
-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 relations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433-440.
- Chang, E. C., Sanna, L. J., & Yang, K. M. (2003). Optimism, pessimism, affectivity, and

- psychological adjustment in US and Korea: a test of a medi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195-1208.
- Ellison, C. G. (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80-99.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George, L. K., Ellison, C. G., & Larson, D. B. (2002).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involvement and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13, 190-200.
- Hood, R. W., Spilka, B., Hunsberger, B., & Gorsuch, R. (2003).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3rd ed.). New York: Guildford Press.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ark, R. L., Shermi, G., Friedlander, Y., Martin, O., & Bondheim, S. H. (1996). Does religious observance promote health? Mortality in secular vs. religious kibbutzim in Israe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6, 341-346.
- Keating, A. M., & Fretz, B. R. (1990). Christians' anticipations about counselors in response to counselor descri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93-296.
- Kogan, S. M., Luo, Z., Murry, V. M., & Brody, G. H. (20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bstance use among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dropou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 382-391.
- Kolchakian, M. R., & Sears, S. F. (1999). Religious Coping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8, 115-125.
- Lazarus, R.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Lewis, C. A., Maltby, J., & Day, L. (2005).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and happiness among US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193-1202.
- Maltby, J., & Day, L. (2000). Depressive symptoms and religious orientatio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depression within the context of other correlates of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383-393.
- Morrow, D., Worthington, E. L., Jr., & McCullough, M. E. (1993). Observers' perceptions of a counselor's treatment of a religious issu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452-456.
- Newcomb, M. D., & Harlow, L. L. (1986). Life events and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loss of control and meaningless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64-577.
- Pearce, M. J. J., Singer, J. L., & Prigerson, H. G. (2006). Religious Coping among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743-759.
- Petersen, L. R., & Roy, A. (1985). Religiosity, anxiety, and meaning and purpose: Religion's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7, 49-62.

- Reker, G. T. (2005). Meaning in life of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actorial validity, age, and gender invariance of the Personal Meaning Index.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71-85.
- Rose, E. M., Westefeld, J. S., & Ansley, T. A. (2001). Spiritual issues in counseling: Clients' beliefs and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61-71.
- Shafraanske, E. P., & Malony, H. N. (1996). Religion and the clinical practice of psychology: The case for inclusion. In E. P. Shafraanske (Ed.), *Religion and the clinical practice of psychology*(pp.561-58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teger, M. F., & Frazier, P. (2005). Meaning in life: One link in the chain from religiousness to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574-582.
- Steger, M. F., Frazier, P., & Oishi, S.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80-93.
- Tix, A., & Frazier, P. (2005). Mediation and mo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ness and mental heal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95-306.
- Worthington, E. L., Kurusu, T. A., McCullough, M. E., & Sandage, S. J. (1996). Empirical research on religion and psychotherapeutic processes and outcomes: A 10-year review and research prospectus. *Psychological Bulletin, 119*, 448-487.
- Wyatt, S. C., & Johnson, R. W. (1990). The influence of counselors' religious values on clients' perceptions of the counselor.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 158-165.

원 고 접 수 일 : 2009. 2. 6

수정 원 고 접 수 일 : 2009. 3. 25

게 재 결 정 일 : 2009. 5. 16

Mediating Roles of Meaning in Life and Optimism i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ness and Well-being

Eun-jung Son

Baekseok University

Hye-young Hong

Myongji University

Eun-kyung Lea

This study examined whether meaning in life and optimism mediates the impact of religiousness on well-being.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60 Christian students at Universities in Seoul, Cheonan, and Busan cities. All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 the positive direc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s, it was found that (a) meaning in lif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ness and optimism, (b) optimis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well-being, and (c) meaning in lif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ness and well-being. These results indicated how religiousness influence well-being and suggested how to intervene effectively to religious clients in the counseling process.

Key words : meaning in life, religiousness, optimism, well-being